

10.22.토

자리산프로젝트 2016 : 우주여자

11.20.일

Jirisan Project 2016 : Universal women

우주여자

남원 실상사

하동 서당마을

상우마을

관동마을

율곡마을

## 지리산프로젝트 2016 : 우주여자

지리산프로젝트는 지리산둘레길 일원에서 펼쳐지는 예술과 학술 프로젝트로서 '지리산'이라는 장소적 특정성과 생명·평화를 관점으로 하는 의제적 특정성을 추구한다. 날날의 특정성이 조화를 이루어 우주적 보편성을 만들어나가듯이 지리산프로젝트는 특정성에 기반을 두어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예술과 학문의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 프로젝트는 지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예술적 공감과 과학적 진리의 수준에서 접목하는 우주적 관점의 융합프로젝트다.

<지리산프로젝트 2016 : 우주여자>는 자연과 공동체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지리산둘레길 일원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답사와 토론, 캠프, 퍼포먼스, 지리산종주, 공연, 학술, 전시 프로그램을 연다. 사전행사 단계에서는 예술가들과 연구자들이 지리산 권역의 시민들과 만나서 '지프달모(지리산프로젝트 매달 모임)'를 통하여 21세기 영성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본행사에서는 '기획전시'와 '학술심포지엄' 등의 대중프로그램을 열어 지리산프로젝트의 뜻을 나눈다.

<지리산프로젝트 2016>의 주제는 '우주여자'다. 이 행사는 남성-자본 중심의 현대사회가 인간과 자연에 가하는 모든 종류의 지배, 억압과 착취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동시에 인간해방의 차원에서 자연의 섭리와 생태 질서를 돌아보는 자리다. 그 실천적 방법으로서 우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여성담론의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여성주의와 한국사회가 만나는 다양한 논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는 '어머니 지리산'에 대한 재검토, 메갈 논쟁 이후의 여성주의, 지리산과 예술과 여성주의 등 세 가지 갈래의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과 학술 행사를 통하여 공감과 논의의장을 마련했다.

### 1. '어머니 지리산'에 대한 재검토

지리산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어머니 지리산' 또는 '모성(母性)의 산'이라 부른다. 지리산에 이처럼 여성적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은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다. 지리산은 '어머니', '모성'으로 표상되는 포용과 자비, 해방의 의미공간으로서 기능했다. 존재의 근원적 회귀를 꿈꾼 많은 지식인이 지리산에서 그들이 되돌아갈 모태나 자궁의 이미지를 찾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지리산'은 매우 각별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리산에 덧붙는 '어머니'는 여성에게 회생과 순종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장하면 우리는 여성을 자연과 등치 시켜 '어머니 대지(大地)'라고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 지리산' 담론에 대한 예찬 수준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차별과 억압의 기제를 걷어내고, 자유와 평화, 공존, 공유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메갈 논쟁 이후의 여성주의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이른바 '메갈 논쟁'은 비판적 실천담론으로서 여성주의의 사회적 의미와 위상을 부각했다. 논쟁 과정에 우리가 확인한 고통과 분노의 언어들은 여성주의자들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 자연,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진보와 해방을 좀 더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숙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는 지금 '여성해방'을 넘어 거의 모든 소수자를 아우르는 인간 해방의 담론으로 확장된 페미니즘의 현재 지평을 확인하면서 담론이 추구하는 해방과 일상 차원의 해방을 근접시킬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학술심포지엄의 발제 토론을 통하여 메갈 논쟁의 경과와 함의를 돌아보고 향후의 여성주의 담론에 주목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 3. 지리산, 예술 그리고 여성주의

담론적 인식과 성찰은 궁극적으로 실천수준에서 우리 삶의 변화와 만나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주의와 그 주변 담론의 인식과 성찰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만나는 양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성(性)의 해방과 인간해방, 그리고 자연해방을 어떻게 추구해나갈 것인가? 거시적 수준에서 볼 때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시적 수준의 문제들, 곧 일상의 작은 문제들에 부단히 천학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온당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경험을 쌓는 일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출현하지 않은 새로운 관계와 형식들, 가능성 모색하는 예술적 실험들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 공동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현대미술이 추구해온 여성주의 미술운동과 지리산의 여성주의 예술활동을 통하여 여성주의 실천을 살펴볼 것이다.

# 남원 실상사 일원

실상사는 전북 남원시에 자리한 사찰로 선(禪)의 가르침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린 곳이다. 또한 도선국사의 비기념비를 봐 이 땅, 이 민족의 흥망을 담당하는 절로 여겨져왔다. 유물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과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호국사찰이기도 하다. 현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문명사회에 대한 모색하고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동의 근본이 되는 도량으로 사부대중공동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지리산운동, 생명평화운동의 모태 또는 산실로도 일컬어진다.

실상사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지리산 프로젝트를 품어왔다. 꾸준히 예술가를 맞이하여 사찰의 공간과 문학유산들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을 담아왔다. 초청된 시각예술가들은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두고 만들어지는 대립적 구도를 깨 수 있는 제3의 관점을 시도한다. 장기프로젝트들이 해를 이어 자속됨과 동시에, 실상사 작은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작업을 통해 지리산 지역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이어간다.



10  
11  
12  
休修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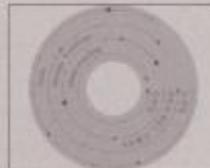
[12]  
[13]

#### 2014-2015 자리산프로젝트

- [1] 안상수(feat. 김경한), 가득함도 빛나고 비움도 빛나라, 2014
- [2] 김기라, 콤비프로젝트, 2014
- [3] 정재실, 배자만다라, 2014-
- [4] 천경우, 하늘이거나 땅이거나, 2014
- [5] 이호선, 지리산 생명평화의 음, 2015
- [6] 정만영, 소리 스웃, 물금 범종소리, 2015
- [7] 박영근, 무주예술학교, 2014
- [8] 강영만, 무궁화프로젝트, 2014-2015
- [9] 김형규, 새로운 세계의 사상회\_365초, 2015
- [10] 안상수(feat. 산민음), 빛304, 2014
- [11] 김성복, 물솟대, 2015
- [12] 김성복, 물장승, 2014
- [13] 정만영, 소리 스웃, 뇌귀 BREAR, 2014



2 - ①



2 - ②



3 - ①



3 - ②



3 - ③



3 - ④



3 - ⑤



4



5





6



7



8



9



10



11



12



13



14

## 1 공든탑

성신석조각연구회 Sungshin Stone Carving Association

자연석, 가변설치, 2016

김성복 Kim Sung Bok, 김동현 Kim Dong Heun, 김병규 Kim Byung Kyu, 김재호 Kim Jae Ho, 김지영 Kim Ji Young, 노준진 Noh Jun Jin, 이호철 Lee Ho Chu 등 성신여대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으로 이뤄진 석조각가 그룹이 실상사에 만들며 작업했다. 천왕문 앞 주차장 둘당을 따라 조성된 공든탑은 산과 들, 그리고 냇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석을 이용해 만들어진 둘탑이다. 둘탑에 쌓인 돌은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원과 영원을 담은 메개체이다. 성신석조각연구회는 등산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여 관람객이 설치된 탑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했다.

## 2 소리문 / 소리비

정만영 Jung Man-Young

① 소리문 -3미터 이내 가변 설치, 나무틀, 진동스피커, 2016  
병종의 울림은 세상 모든 것을 끌려 깨워 중생이 깨닫길 원하는 부처의 마음이다. 무쇠로 이루어진 무거운 종은 나무로 된 종각에 달려있다. 나무로 된 타봉으로 종신의 당좌를 치면 비로소 종소리가 만들어지고, 넓게 넓게 그 울림이 떠져 나간다. 정만영 작가는 부처의 마음이 담긴 병종의 울림을 역추적한다. '소리문'은 병종의 울림과 장과 반대로 금속이 나무를 때려 소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진동스피커는 금속의 타봉이 되고 나무들은 세상을 그리는 보이지 않은 소리문이 된다. 작가는 소리문을 통해 사람들의 소리, 실상사의 소리를 듣고 또 보여주고자 한다.

## ② 소리비-실상사 사문드스케이프, CD, 2016

정만영 작자가 2014년부터 채집해온 실상사와 그 주변의 소리를 담은 CD이다. 작가는 실상사 경내에서 아주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리오는 수많은 소리에 귀 기울였다. 2014년 봄 늦은 저녁에는 실상사 주변의 넓은 논에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만큼 들리오는 개구리소리를 채집했다. 2015년 가을에는 황금들판의 나락같은 참새소리를 채집했다. 실상사로 들어가는 길, 해발교, 많은 논, 솔림, 화랑원의 숲, 설계천, 비닐하우스 등 실상사 곳곳에서 만난 소리를 풍경을 세겨볼 수 있다.

## 3 프로젝트시작 Project Sizak

Project Sizak(프로젝트 시작)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순수사진 전공 대학원생 김찬규, 정영돈, 김재연, 안정진, 윤흥준을

중심으로 한 신진 작가들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사진의 본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협업, 참여,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실험적 사진작업을 국내외 현대 예술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다.

지리산 프로젝트를 위해 5명의 작가들은 특정한 주제 없이 실상사 안에서 사찰과 자연과의 순수한 시간의 경험을 통해 각자의 시선으로 조용히 관찰하며 마치 사찰내의 작은 울림과도 같은

소중한 일을 카메라를 통해 시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였다.

### ① 실상 實像 / 안정진 Jeongjin Ahn

제식천의 궁전에 그을처럼 걸려있다는 무구한 구슬인 인드리망과 닮아 보이는 이 작업은, 실상사(實相寺) 경내·외의 공간들이 서로 마주하듯 비추도록 만들어진 사진작업이다. 일반적인 사진이 보여주는 단 한 지점에서의 시각적 방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사진 속의 구체·실상(實像)은 전 방향의 시점을 포함하는 파노라마 사진의 또 다른 형식이다. 이러한 시도는 실상사 경내·외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각각의 지점들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찰의 공간 전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생각하며 구상하였다.

실상사에 머무는 시간 동안 불성은 어디에나 있다는 불교적 맥락을 고심하며, 실상사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마치 수행과도 같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② 꽃불 / 윤태준 Taejun Yun

태워버릴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을까. 태울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언제나 사람 속에 있다. 이러한 것을 스스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찌연 작은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드러낼 수는 없다. 하지만 태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어느 순간 차고 미지러져 흔든다. 태워버릴 수도 없고, 없어버릴 수도 없지만 거기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를 쥐고 흔들기도 하고 때론 끝없는 심연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한다.

### ③ 초록의 시간 / 김재연 Jaeyeon Kim

다시 실상사를 찾았을 때 처음 촬영했던 식물들이 궁금했고 바로 가보았다.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했던 식물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들도 까맣게 타서 죽어 있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작업에서, 언제든 찾아가면 그 대상을 사진에 담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식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빠르게 변하고 또 사라진다. 도시에서 벗어난 하루는 처음엔 매우 길고 더디게 느껴졌다. 마치 우주의 어떤 곳에 와서 다른 시간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긴 하루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고 차분히 식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작업 과정에서 한 식물을 정하고 약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의 촬영 시간을 가진다. 대상이 될 식물을 고르고 첫 번째 촬영 후 20분씩 간격을 두어 총 다섯 번 다중노출을 한다. 다음 촬영을 기다리며 식물을 관찰하기도 하고 짧은 순간을 공유해보기도 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해가 변하면 바뀌는 대로, 잠시 식물의 시간을 밟힐 수 있었다.

### ④ Birdsong / 김찬규 Chankyu Kim

약사여래를 모시는 약사전 뒤편에 자그마한 규모의 대승의 풍경을

보며 옛 신라 경문왕조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여이설화'를 떠올리게 되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설화의 재미있는 점은 등장인물과 이야기의 배경만 다를 뿐 세계 각자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어떠한 이야기를 가슴속에 담아둔다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은 날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과 걱정을 품으며 살아간다.

사진 속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내려놓고 싶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 불편한, 감정과 이야기들을 물에 쉽게 녹는 특수용지에 적게 된다. 동시에 나는 그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며, 이를 같은 용지에 인화한 후 전시 기간 동안 야외에 설치할 계획이다. 용지의 특성상 그들의 사진과 사연이 적힌 종이는 일정기간 안에 모두 녹아 없어지고, 땅 빙 역자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될 것이다.

### ⑤ 성산 / 정영돈 Youngdon Jung

굴곡진 구름 위 평평으로 자리한 땅. 작은 입자들이 모여 하나의 사물을 형성하듯 사물의 속성이 이미지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의 장소성에 따른 관계의 결과이거나 지속하는 상태에서 보이는 감각의 단면일 것이다. 이처럼 사진의 입자로 하여금 드러나는 지리산의 풍경은 실상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종교의 상징이나 기호만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의 단면을 내포한다.

실상사 경내에서 보이는 풍경을 촬영하고 필름을 확대하였다. 관광객은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 산과 하늘의 단순한 풍경을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연상은 자연을 바라보는 습관적 방식, 혹은 땅과 하늘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과 구름이 각각의 위치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특정한 규칙에 따라 옮겨 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드러난 이미지의 모호성은 풍경에서 드러나는 대상들의 경계를 와해시킴과 동시에 자연을 감각하는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 4. △의 풍경

고승욱 Koh Seung Wook (feat. 이여울, 문인경, 손호영, 윤민서, 김혜원)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각각 70x46cm, 2016

고승욱 작가의 '△(세모)의 풍경-탁영' 연작 중 두 점이 선보인다. 한 점은 제주 다랑쉬와 아만다랑쉬오름의 풍경, 다른 한 점은 실상사의 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모두 국가폭력의 직간접적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세모)'의 의미가 이 지점에 닿는다. 미군에 의해 수백 명의 마이와 노인이 학살당한 충북 노근리 마을의 아직 박혀있는 총탄 자국 표기법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아직 박혀있는 총탄과,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정 당하는 희생자들의 처지를 등치 하면서 관람자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끈다.

지리산프로젝트 2016 : 우주여자

Jirisan Project 2016 : Universal women

2016년 10월 22일[토] - 11월 20일[일]

남원 실상사 - 하동 서당마을 - 삼우마을 - 관동마을 - 을곡마을

개막식: 2016년 10월 22일[토] 13:00 남원 실상사

개막 퍼포먼스: 천경우, 하늘이거나 땅이거나 / 장유정, 천년 묵은 먼지

예술감독: 김준기

큐레이터: 김지연

협력큐레이터: 김재환

참여작가: 강영민(feat. 무무), 고승욱, 김태연, 라선영, 석성석, 성신석조각연구회,

이영희(feat. 인드라망 코땀), 임옥상, 임채욱, 장유정, 정만영, 정재철, 정정엽,

천경우, 프로젝트시작(Project Sizak)

학술심포지엄: 다시, 여성주의와 예술

2016년 11월 4일[금] 14:00 / 경남도립미술관

윤지영, 현실운용원리로서의 여성혐오-남성공포에서 통감과 분노의 정치학으로

정필주,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운동

이유진, 지리산의 여성주의 예술활동

주최: 사단법인슬길

주관: 지리산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협력: 경남도립미술관, 실상사

jirisanproject2016@gmail.com / www.jirisanproject.net

